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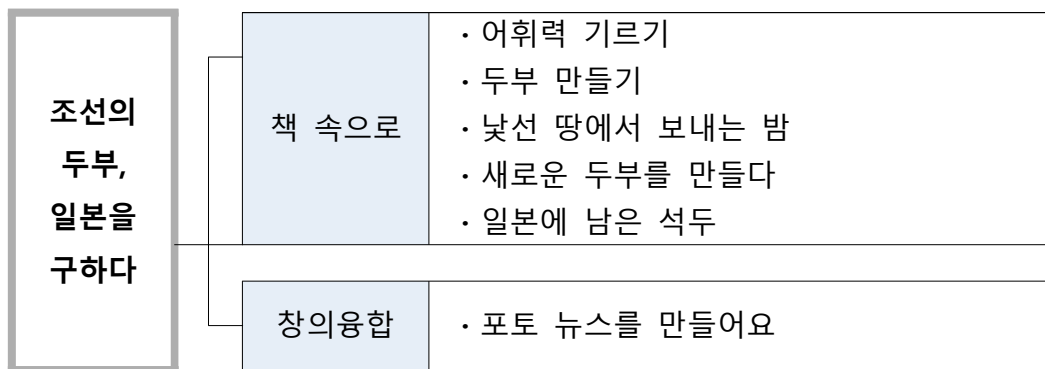
# 조선의 두부, 일본을 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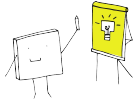
- \* 글 : 유영주
- \* 그림 : 윤문영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248쪽
- \* 대상 : 초등학생

## · 책 소개

임진왜란 때 눈앞에서 일본 장수의 칼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포로로 할머니와 일본으로 가게 된 소년 석두의 이야기입니다. 석두는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고향에서 하던 대로 할머니와 두부를 만들며 낯선 일본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전쟁에 패하면서 극심한 사회 혼란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허허대던 일본인들의 배고픔과 영양 결핍을 두부로 채워 주지요. 바로 이 두부가 아직도 변함 없는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는 ‘당인정 두부’입니다. 이 책을 통해 일본의 대중 음식인 두부가 어떻게 일본으로 전해졌는지, 그리고 일본 땅에서도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강인하게 살아낸 우리 조상의 얼을 느껴보세요.

## · 주요 독후활동





##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조선의 두부, 일본을 구하다』의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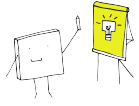

2. 『조선의 두부, 일본을 구하다』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전쟁 포로에서 일본의 명품 당인정 두부의 제조자가 된 조선 소년의 이야기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조선의 수많은 기술자가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중에 도자기를 전수해 준 기술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전쟁에 패하면서 극심한 사회 혼란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허허대던 일본인들의 배고픔과 영양 결핍을 채워 주었던 ‘당인정 두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일본인의 대중적 음식으로 사랑받는 두부의 시작점이 된 ‘당인정 두부’의 유래와 포로 신세로 머나먼 일본 땅에서 조국 조선에 대한 그리움을 한 소년의 시각으로 그려 낸 역사동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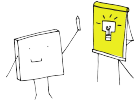
- 1) 임진왜란 때 일본은 왜 조선의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 2) 『조선의 두부, 일본을 구하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 3) 주인공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 4) 포로로 끌려간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독서 중

1. 책 앞부분에 등장인물의 소개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조선의 두부, 일본을 구하다』를 읽고, 등장인물을 소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등장인물	소개	그림
석두		
월이		
안골 댁		
박인검		
금옥이		
마츠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어휘력 기르기

\* 『조선의 두부, 일본을 구하다』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두부는 콩을 갈아서 만들거든요. 콩을 갈려면 ( )이 필요해요.

㉡ ( )는 원래 추운 겨울, 강에서 캐 온 얼음을 저장하는 곳이다.

㉢ 왜나라에서는 장수들끼리 싸움을 피하려고 종종 남의 자식을 ( ) 삼아 잡아 둔다네.

㉣ 누가 살다 갔는지 방 가운데 불 피우는 ( )가 남아 있었다.

(나) 석두는 시나브로 조바심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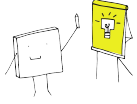
1. (가)의 괄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골라서 적어 보세요.

- ① 석빙고
- ② 화로
- ③ 인질
- ④ 맷돌

2. (나)의 밑줄 친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시나브로**

[부사]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두부 만들기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할머니와 석두가 맷손을 마주 잡았다. 맷돌이 덜거덕거리며 천천히 돌아갔다. 할머니가 맷돌 구멍에 콩과 물을 떠 넣었다. 콩물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나) 석두는 우물가에 불려 놓은 콩을 들고 왔다.

(다) 할머니가 커다란 나무통 위에 삼베 보자기를 걸쳤다. 양 끝을 잡고 석두에게 눈짓했다. 석두가 끓인 콩물을 떠 부었다. 뽀얀 콩물이 나무통 안으로 주룩주룩 떨어졌다. 삼베엔 콩물 빠진 비지만 남았다. 석두는 비지가 든 삼베를 비틀어 꼭 짜다.

(라) 비지 뺀 콩물을 다시 솥에 부었다. 석두는 다시 아궁이에 약한 불을 넣었다. 할머니가 콩물에 바닷물을 끼얹고 긴 나무 주걱으로 살살 저었다. 콩물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석두는 콩물이 응어리지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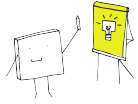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마) 할머니가 갈아 놓은 콩죽에 물을 부었다. 되직한 콩죽이 점점 묽어졌다.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넣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콩물이 설설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콩물 위로 하얀 거품이 부르르 끓어올랐다. 할머니가 얼른 찬물을 한 바가지 떠 부었다.

(바) 석두가 나무곽을 내려놓자 할머니는 보자기를 찾았다. 요리장이 눈치로 알고 깨끗한 베 보자기를 꺼내 왔다. 나무곽에 베 보자기를 깔고 나무곽 아래에 빈 동이를 밀어 넣었다. 할머니가 몽글하게 응어리진 순물을 바가지로 떠 부었다. 맑은 콩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두부 응어리들이 나무곽에 차올랐다. 할머니가 천을 겹쳐 덮고, 그 위에 나무판과 돌을 얹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1. 본문의 글을 두부 만드는 순서에 맞게 배열해 보세요.

2. 일본에서 두부를 만든 할머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낮선 땅에서 보내는 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박인겸은 핏빛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다. 낮선 나라, 낮선 집에서 자는 첫 밤이었다. 박인겸이 몸을 뒤척였다. 석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풍지에 드리운 댓잎 그림자가 석두 마음처럼 흔들렸다.

박인겸이 조용히 방을 나갔다. 마당을 서성이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저 달은 여기나 조선이나 마찬가지로 테지.”

걸음을 멈춘 박인겸이 밤하늘을 보며 시를 읊었다. 석두는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나) 고요한 밤, 낮설고 물선 땅에 와 잠 청하니

( ① )

서쪽 하늘 흐르는 저 구름 알까?

짙은 어둠 밝히는 저 별이 알까?

내 나라 떠난 것도 서러운데

아비 잃고 자식까지 빼앗기니, 큰 슬픔 가눌 길이 없구나.

( ② ) 좋으련만

달도 별도 아무 말이 없구나.

(다) 다음 날 아침, 장군차 잎이 또 떨어져 있었다. 가지에 달린 잎이 이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석두는 그래도 장군차 나무에 물을 졸졸 부었다.

박인겸이 다가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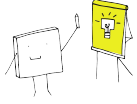
“흠이며 물이며, 공기까지 다르니 살기 힘들 거다. 잎이 다 진 걸 보면 벌써 죽었는지도 몰라. 그만 정성을 거두어라.”

1. (나)는 박인겸이 마음을 담아 지은 시입니다. 괄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박인겸의 심정을 짐작해 보고, 들어가면 좋을 시구를 생각해서 써 보세요.

번호	들어갈 시구
①	
②	

2. (다)에서 석두가 장군차 나무를 계속 돌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석두가 되어 장군차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말을 해 주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새로운 두부를 만들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느 날 모리가 요리장을 찾아왔다.

“아버님이 전장에서 두부를 찾으시네.”

요리장이 난감한 얼굴로 머리를 긁적였다.

“아이고, 세키까지 가면 반나절도 못 가 설겄요.”

‘두부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

석두는 그릇을 씻다가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당근을 다듬다가도 답 없는 물음을 되뇌기 일쑤였다.

(중략)

솔잎을 뜯어 콩물 끓일 때 넣었다. 바닷물을 붓고 두부 응어리를 나무곽에 담았다. 금방 만들어진 두부를 배 보자기에 넣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비틀어 짜다. 찰떡같이 쫄쫄해진 두부 덩이를 바닷물에 두어 시간 담가 놓았다가 건져 냈다.

“짠맛이 배었지만, 쉬지는 않았어. 마침내 해냈구나!”

(나) 장사가 잘되자 수상쩍은 왜인들이 가게 안을 기웃거렸다.

석두는 팬스레 걱정이 들었다. 왜인들은 맷돌도 금방 따라 만들었다. 조선의 맷돌보다 작았지만, 마른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데도 즐겨 썼다.

‘당인정 두부도 언제 만들어 낼지 몰라.’

석두는 시나브로 조바심이 생겨났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은 가랑비에 옷 젖듯 커져만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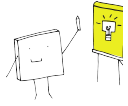
다음 날부터 석두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1. (가)에서 석두가 새로운 두부를 만들어 낸 계기는 무엇인가요? 석두는 어떤 두부를 만들었나요?

왜 새로운 두부를 만들었나요?	
이 두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 (나)에서 석두가 또 새로운 두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석두가 새로운 두부를 만든 것처럼 사람들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미 있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발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나요? 그걸 생각해 보고, 어떤 발명품이 필요할지 고민해서 적어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⑤ 일본에 남은 석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석두야, 정말 가지 않을 생각이냐?”

석두 머릿속에 츠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르신과 내가 떠나게 되면…….’

당인정은 비렁뱅이처럼 살던 조선 사람들이 고개 들고 사는 삶의 터전이였다.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는 츠지에게 당인정 사람들은 힘없는 개구리나 마찬가지로였다. 석두는 마음을 굳혔다.

“어르신과 제가 사라지면 츠지가 조선 사람들을 내쫓고, 당인정을 빼앗으려 들 거예요. 원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요.”

“아뽀사! 내가 그 생각을 못 했구나. 카즈토요가 순해 보여도 한번 배신한 사람에겐 원수처럼 대한다더라.”

박인겸이 씩씩한 눈길로 원이를 봤다. 두고 가려니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다.

석두는 전부터 생각해 왔던 얘기를 꺼냈다.

(나) “저, 어르신. 두부 조합을 만들면 어떨까요?”

“두부 조합을?”

“예. 왜나라 상인들이 조선 상인들을 은근히 깔보잖아요. 혈값에 가져가고, 외상도 갈수록 늘어나니 애가 탄다더라고요.”

“칼 찬 낭인들을 앞세워 겁박하니, 당하는 수밖에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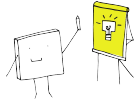
“그러니까, 조선 상인들끼리 푹푹 뭉쳐 두부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조합에서 상거래 규칙을 만들면 저들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1. 석두가 조선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조합을 만들면 혼자 장사를 하는 것보다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석두가 조합을 만들자고 한 이유를 생각하며 답을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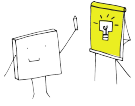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조합: 여러 가지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조직한 단체.





##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포토 뉴스를 만들어요

※ 당인정 두부처럼 임진왜란 후 일본에 끌려가 우리의 기술을 전한 장인들이 있어요. 중세 일본에 직조 기술을 전한 조선 직녀, 일본 유학의 아버지 강항, 일본에 두부 문화를 뿌리 내린 시코쿠의 박호인,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 등을 조사해 보고, 어떤 우수한 기술을 전해 주었는지를 포토 뉴스로 만들어 보세요.



##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1. 예) 표지의 아이는 조선 아이인 거 같아. 예) 두부가 어떻게 일본을 구했다는 걸까? 예) 표지 배경은 일본인 거 같아.</p> <p>2. 1) (예시 답안) 일본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선의 기술자들을 끌고 갔다. 2)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소년. 3) (예시 답안) 두부를 만들었을 거 같다. 4) (예시 답안)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려면 정말 억울하고 슬펐을 거 같다.</p>																					
3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등장인물</th> <th style="width: 60%;">소개</th> <th style="width: 25%;">그림</th> </tr> </thead> <tbody> <tr> <td>석두</td> <td>⇒ (예시 답안) 일본 무사에게 아버지를 잃었다. 할머니와 함께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두부를 만든다.</td> <td>⇒ (생략)</td> </tr> <tr> <td>원이</td> <td>⇒ (예시 답안) 박 대감 집 손주로 포로로 끌려가 왜장의 양아들이 된다.</td> <td></td> </tr> <tr> <td>안골 맥</td> <td>⇒ (예시 답안) 석두의 할머니, 두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석두와 포로로 끌려간 뒤, 석두에게 두부 만드는 기술을 전수한다.</td> <td></td> </tr> <tr> <td>박인겸</td> <td>⇒ (예시 답안) 포로로 일본에 끌려간 뒤, 조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선인 마을을 만든다.</td> <td></td> </tr> <tr> <td>금옥이</td> <td>⇒ (예시 답안) 석두가 짝사랑하는 박인겸의 딸이다. 일본에 끌려간 뒤, 원이와 함께 왜장의 양딸이 된다.</td> <td></td> </tr> <tr> <td>마츠</td> <td>⇒ (예시 답안)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조선에서 목숨을 잃은 뒤로 조선인이란 면대놓고 미워한다. 부역에서 함께 일하게 된 석두를 괴롭히며 곤경에 빠뜨린다.</td> <td></td> </tr> </tbody> </table>	등장인물	소개	그림	석두	⇒ (예시 답안) 일본 무사에게 아버지를 잃었다. 할머니와 함께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두부를 만든다.	⇒ (생략)	원이	⇒ (예시 답안) 박 대감 집 손주로 포로로 끌려가 왜장의 양아들이 된다.		안골 맥	⇒ (예시 답안) 석두의 할머니, 두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석두와 포로로 끌려간 뒤, 석두에게 두부 만드는 기술을 전수한다.		박인겸	⇒ (예시 답안) 포로로 일본에 끌려간 뒤, 조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선인 마을을 만든다.		금옥이	⇒ (예시 답안) 석두가 짝사랑하는 박인겸의 딸이다. 일본에 끌려간 뒤, 원이와 함께 왜장의 양딸이 된다.		마츠	⇒ (예시 답안)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조선에서 목숨을 잃은 뒤로 조선인이란 면대놓고 미워한다. 부역에서 함께 일하게 된 석두를 괴롭히며 곤경에 빠뜨린다.	
등장인물	소개	그림																				
석두	⇒ (예시 답안) 일본 무사에게 아버지를 잃었다. 할머니와 함께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두부를 만든다.	⇒ (생략)																				
원이	⇒ (예시 답안) 박 대감 집 손주로 포로로 끌려가 왜장의 양아들이 된다.																					
안골 맥	⇒ (예시 답안) 석두의 할머니, 두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석두와 포로로 끌려간 뒤, 석두에게 두부 만드는 기술을 전수한다.																					
박인겸	⇒ (예시 답안) 포로로 일본에 끌려간 뒤, 조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선인 마을을 만든다.																					
금옥이	⇒ (예시 답안) 석두가 짝사랑하는 박인겸의 딸이다. 일본에 끌려간 뒤, 원이와 함께 왜장의 양딸이 된다.																					
마츠	⇒ (예시 답안)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조선에서 목숨을 잃은 뒤로 조선인이란 면대놓고 미워한다. 부역에서 함께 일하게 된 석두를 괴롭히며 곤경에 빠뜨린다.																					
4쪽	<p>1. ㉠-④, ㉡-①, ㉢-③, ㉣-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석빙고: 얼음을 넣어 두던 창고. ② 화로: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쓴다. ③ 인질: 약속 이행의 담보로 잡아 두는 사람. ④ 맷돌: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 둥글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고 윗돌 아가리에 갈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려서 간다.</p> </div> <p>2. (예시 답안) 시나브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p>																					
5쪽	<p>1. (나)-(가)-(마)-(다)-(라)-(바)</p> <p>2. 예시 답안) 조선에 계속 살면서 두부를 만들어 먹으면 좋았겠지만, 일본에서 그나마 두부를 만들 수 있고, 석두에게 조선 음식을 먹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같다.</p>																					
6쪽	<p>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번호</th> <th style="width: 90%;">들어갈 시구</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 예시 답안) 바닥에 바늘이 박힌 듯 불편하기만 하다.</td> </tr> <tr> <td>②</td> <td>⇒ 예시 답안) 달과 별이 아비와 자식의 목소리 전해 주면</td> </tr> </tbody> </table> <p>2. 예시 답안) 타지에 와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장군차와 자신의 모습이 비슷했기 때문에 더욱 정이 갔을 거 같다. 3. 예시 답안) “장군차, 힘내! 네가 씩씩하게 뿌리를 내리면 나도 힘내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p>	번호	들어갈 시구	①	⇒ 예시 답안) 바닥에 바늘이 박힌 듯 불편하기만 하다.	②	⇒ 예시 답안) 달과 별이 아비와 자식의 목소리 전해 주면															
번호	들어갈 시구																					
①	⇒ 예시 답안) 바닥에 바늘이 박힌 듯 불편하기만 하다.																					
②	⇒ 예시 답안) 달과 별이 아비와 자식의 목소리 전해 주면																					

7쪽	<p>1.</p> <table border="1"> <tr> <td>왜 새로운 두부를 만들었나요?</td> <td>⇨ 전장까지 가지고 갈 동안 쉬지 않는 두부를 만들어야 해서.</td> </tr> <tr> <td>이 두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td> <td>⇨ 예시 답안) 이전 두부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td> </tr> </table> <p>2. 예시 답안) 왜인들이 당인정 두부와 똑같은 두부를 만들어 낼 거 같아서, 새로운 두부를 개발하려고 했다.  3. 예시 답안) 평소에 진흙을 밟고 집에 들어오면 발자국이 현관에 남는 게 싫었다. 신발을 닦아주는 기계가 개발되면 좋겠다.</p>	왜 새로운 두부를 만들었나요?	⇨ 전장까지 가지고 갈 동안 쉬지 않는 두부를 만들어야 해서.	이 두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예시 답안) 이전 두부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왜 새로운 두부를 만들었나요?	⇨ 전장까지 가지고 갈 동안 쉬지 않는 두부를 만들어야 해서.				
이 두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예시 답안) 이전 두부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				
8쪽	<p>예시 답안) 자기가 떠나게 되면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이 더 힘들어질 거 같아서.  2. 예시 답안) 함께 두부 만드는 사람의 목소리를 모으면 좀 더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 또 함께 규칙을 정해 똑같이 하면 일본이 두부 조합의 모든 사람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p>				
9쪽	<p>(가이드) 개인이 만들거나 모둠으로 함께 만들 수 있어요. 자료를 찾아본 뒤 사진(그림)과 함께 인물들과 문화 유산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p>				